

농어촌公 전남, 올해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2025-01-15 14:52 광주CBS 조시영 기자 |

사업예산 전액 집행 목표, 신성장 신규사업 지속 발굴로 미래성장 기반 확보



농어촌공사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를 추진해 경영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 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김재식 본부장은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전남지역본부의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한국농어촌 공사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6278243>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올해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1.16 09:45

사업예산 전액 집행 목표, 신성장 신규사업 지속 발굴로 미래성장 기반 확보 지역특화 자원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토론회 개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公 전남, 올해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1.15 16:34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올해 '지속 가능성' 방점...경영목표 7349억

윤 최홍석 기자 | 승인 2025.01.15 15:23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등 농어촌 환경변화에 맞춘 의미 있는 변화 주문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병호 사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서울파이낸스 (광주) 최홍석 기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공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홍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2025년 경영목표 7349억 설정

✎ 한민식 기자 | ⌚ 승인 2025.01.15 15:08

청렴·안전경영 내재화,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 생태계 조성



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병호 사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



이병호 농어촌공사장, 농어촌 미래 성장 전남본부가 선도 주문

승인 : 2025-01-15 15:32:37

전남지역본부, 올해 경영목표 7349억 달성 업무 보고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남본부 대회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 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남 기자 sidae1004@asiatoday.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2025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신성장 사업 지속 발굴로 미래성장 기반 확보
자원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주제로 'FUTURE KRC' 토론회 등

2025년 01월 16일 (목) 오전 12시 01분 05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 전남본부 업무보고회'에서 식량안보·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남본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병호 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남본부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보고회에서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공감경영 실현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혁신생태계 조성 등으로 경영 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스마트 축산·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남본부의 참여 확대로 '농어촌 미래성장 기반'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회에 이어 '지역특화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토론회는 “사람·자연·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슬로건으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에너지·디지털 3가지로 분류, 지역본부별 전략과 전술을 찾아가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유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민 참여형·지자체 주도형 집적화 단지 조성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 만큼 미래 세대가 부담할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등 내·외부적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기에 전남지역본부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에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올해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송덕만 기자 | 승인 2025.01.15 14:35

사업예산 전액 집행 목표, 신성장 신규사업 지속 발굴 미래성장 기반 확보
지역특화 자원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 주제 FUTURE KRC 토론회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이병호 사장은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 인권 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를 추진해 경영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농어촌공사]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 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올해 주요 사업에 7,349억원 투입

디지털 농업·스마트 축산 등
신성장 신규사업 지속 발굴

2025년 01월 16일(목) 14:5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15일 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병호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내
전남본부는 주요 사업에 7,349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주요 사업에 7,349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최근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병호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
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
동력·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선정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디지털 농업·스마트 축산·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
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
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가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에너지·디지털 세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 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현 기자

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37006998402421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1일 21:48:0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7349억 달성 경영 목표 수립

미래성장 기반 확보 신규사업 지속 발굴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1-15 14:48



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병호 사장./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 대응 주문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1.15 15:12

경영목표 7349억원 추진 등 업무보고 받아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회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 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휴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식 기자

농어촌公 전남, 올해 경영목표 7349억 추진...신성장 신규사업 지속 발굴 미래성장 기반 확보

지역특화 자원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토론회 개최

김춘수 기자(=전남) | 2025.01.16. 10:33:38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지난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식량안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남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미래를 위한 정책사업 내실화 ▲청렴·인권·안전경영 내재화로 대국민 공감경영 실현 ▲미래성장동력, 재무건전성 확보로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해 경영 목표 7349억 원을 달성 목표로 삼았다.

특히 디지털 농업, 스마트 축산,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정 변화에 따른 신성장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사 참여 확대를 통해 농어촌 미래 성장 기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이 지난 15일 전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전남본부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전남지역본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전략'을 주제로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FUTURE KRC 실현 방안 토론회는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기치로 공사 핵심기능을 공간, 에너지, 디지털 3가지로 분류해 지역본부별 성장 가능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농어촌의 미래를 그려가는 토론의 장이다.

토론에서는 2050탄소중립,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유희자원을 재생에너지 개발 방안, 주민 참여형과 지자체 주도형의 집적화 단지 등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은 농어촌의 환경가치를 높여가는 일이기도 한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질 기후 부채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내외부적 환경변화가 급격한 대전환기의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사가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전남지역본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